

중국 IT 수요 Update

성수기를 앞두고 아직 부진한 상황 지속 중

2017/09/01

■ 중국 IT 판매, 재고 동향에 주목 필요

최대 IT 시장인 중국의 IT 수요가 성수기를 앞두고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수기에도 부진한 수요가 이어질 경우, 비수기에 재고 정리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IT 및 반도체 업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연간 최성수기인 3분기 말, 4분기 초를 앞두고 있는 지금부터 중국의 IT 제품 판매 동향, 재고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중국 IT 수요 부진 지속 중

중국 IT 지수 조사 기관에 따르면 중국의 IT 판매지수는 8월 28일 현재 78.8로 전년 동기 대비 6% 하락하였으며 올해 초 고점 형성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림1> 참조). IT 경기지수의 경우에도 지수 자체는 횡보세이나 YoY 증감률은 올해 초 이후 하락세가 지속 중이다 (<그림2> 참조).

노트북, 데스크탑, 태블릿을 모두 포함하는 중국 PC 판매지수 역시 6월에 반등하였으나 8월에 들어와서 하락 반전하였으며 특히 그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노트북 판매지수가 8월에 들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3, 4> 참조).

중국 시장 내 휴대폰 출하의 부진은 가장 큰 우려를 불러 일으키는 요소로 판단된다. 중국 시장 스마트폰 출하량은 7월에 4,083만대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6월의 3,948만대에 비해서는 3% 증가한 수치이나 7월의 YoY 증감률은 -15%로 6월의 -6%에서 추가 하락하였다 (<그림5> 참조). 지난해 강력한 생산 활동으로 시장점유율을 크게 증가시켰던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자국 내 출하량 역시 7월에 -17%의 YoY 증감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6> 참조).

Oppo, Vivo 등 중국 업체들은 인도에서도 정부 규제 및 중국-인도 간 국경 분쟁에 따라 3Q17 인도향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전체 출하량은 최근 들어 상당한 부진을 보이고

Analyst 송명섭

(2122-9207)

mssong@hi-ib.com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내내 지속 중인 중국 스마트폰 수요의 부진은 신규 아이폰 출시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일 수도 있으나 지난해 보조금 지급에 따라 올해 수요가 미리 당겨져 발생한 것이 이유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약 9월 12일 공개될 신규 아이폰의 판매가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재고 부담에 따라 Mobile DRAM 등 주요 부품 수요에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여전히 활발한 생산 활동에 따라 중국 IT 재고 증가 중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성수기를 앞둔 중국 IT Set 업체들의 생산 활동은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통계청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7월에 215억 달러를 기록하여 올해 1월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7월의 YoY 증감률은 +18%를 기록 중이다 (<그림7> 참조).

이렇게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생산 활동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중국 IT 재고액은 7월에 3,433억 위안을 기록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그림8> 참조). 중국이 전 세계 PC, 스마트폰 등 Set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 수준에 이를 경우를 감안하면 중국 IT 재고액의 대부분이 Set 재고액일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 반도체 출하-재고 사이클은 역사적 고점 후 하향 혼조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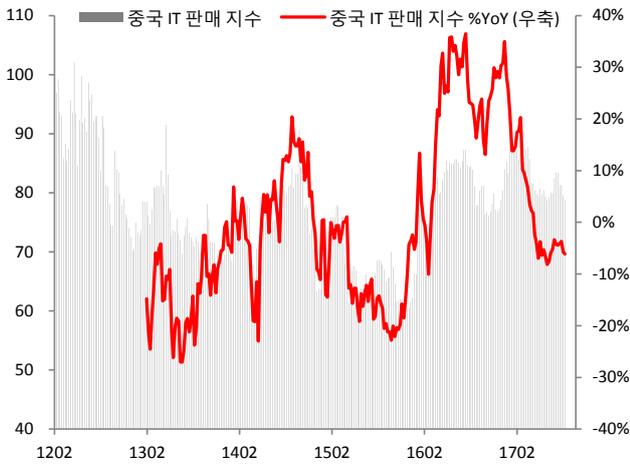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한국 반도체 출하, 생산지수 YoY 증감률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고지수 YoY 증감률은 역사적 저점 수준에서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림9> 참조). 출하가 부진하나 재고가 극히 적은 상황인 만큼 한국 반도체 업황은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단 반도체 주가와 상관 관계가 깊은 한국 반도체 출하-재고 사이클 (출하 YoY 증감률 - 재고 YoY 증감률)은 지난 2월에 역사적 고점 수준인 59%에 이른 후 7월의 21%까지 하향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10> 참조). 물론 한국 반도체 출하-재고 사이클이 향후 재상승하여 신고점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으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역사적 고점에 이른 후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우려스러운 점이다.

■ 성수기 수요 부진 시, 내년 상반기 비수기 효과 커질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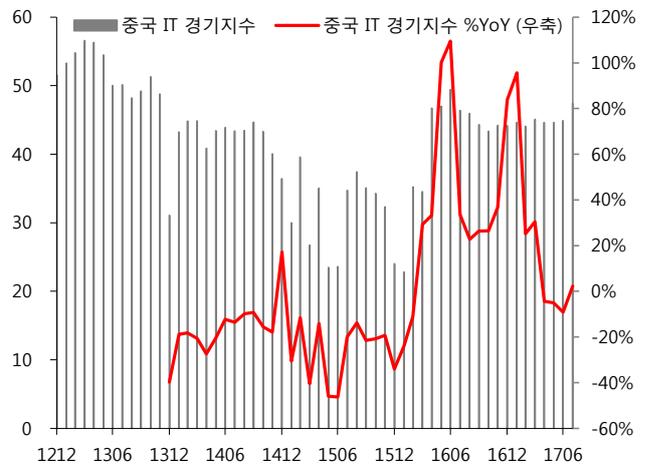
중국 IT 재고액이 사상 최고치로 증가 중인 가운데 만약 현재의 부진한 IT 수요가 성수기에도 이어진다면 올해 말 경부터 Set 재고의 축소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내년 상반기 비수기 효과가 강화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반도체 등 부품 수요의 약세와 부품 재고 증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최근 발생한 Inotera 반도체 라인의 가스 누출 사고의 영향에 따라 DRAM 가격 및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은 4Q17까지 강력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1Q18 이후의 업황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부터 중국 IT 수요의 강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중국 IT 판매지수 및 YoY 증감률 추이. 올해 초 고점 형성 후 부진 지속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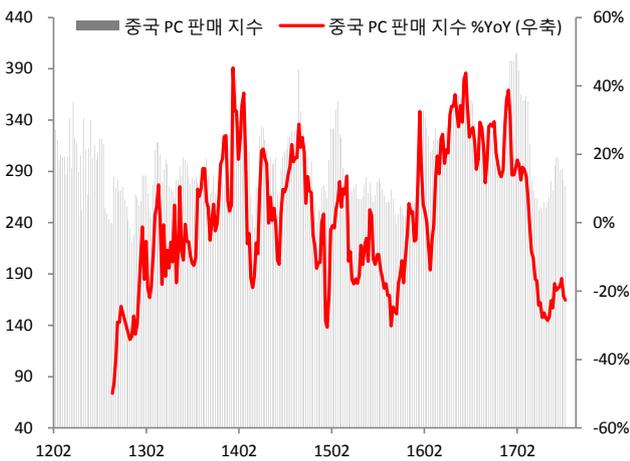
자료: WIND, 하이투자증권

<그림 2> 중국 IT 경기지수 및 YoY 증감률 추이. 경기지수는 회복세, 증감률은 부진 지속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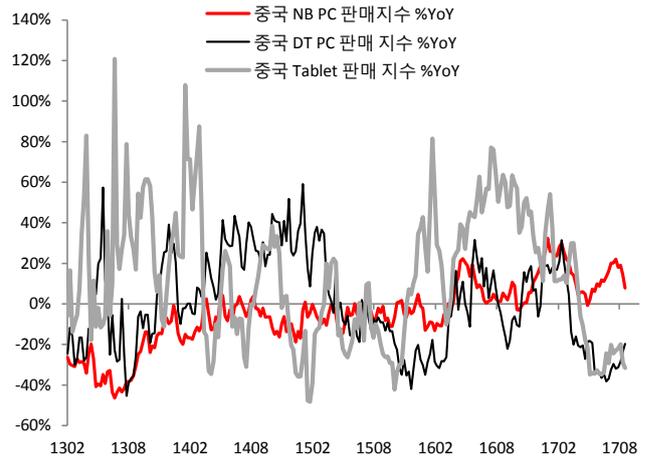
자료: WIND, 하이투자증권

<그림 3> 중국 PC (NB+DT+Tablet) 판매지수 및 YoY 증감률 추이. 8 월들어 재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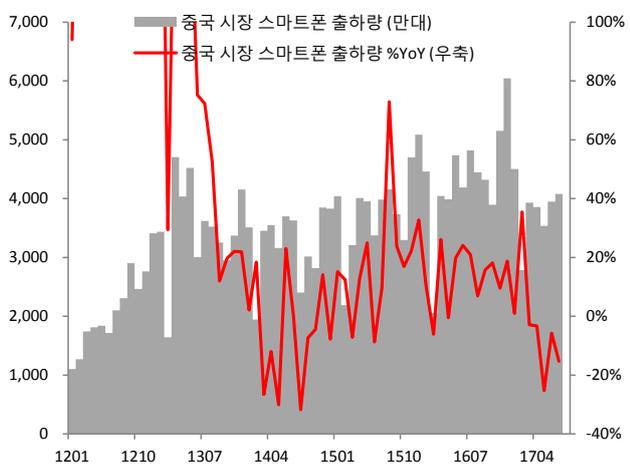
자료: WIND, 하이투자증권

<그림 4> 중국 PC 종류별 판매지수 YoY 증감률 추이. 최근 DT 는 반등 중이나 NB 와 Tablet 은 하락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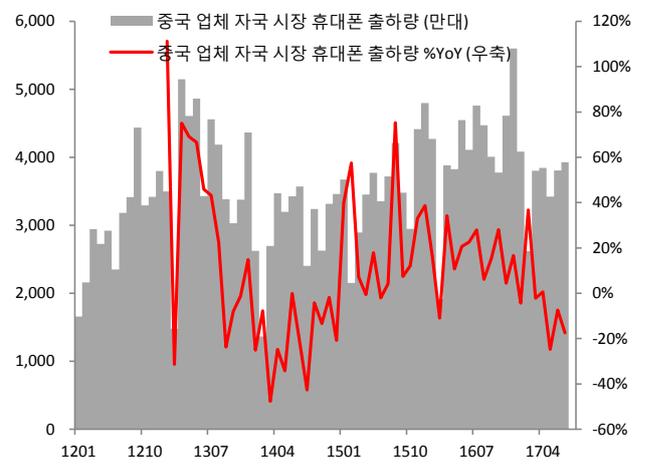
자료: WIND, 하이투자증권

<그림 5> 중국 시장 스마트폰 출하량 및 YoY 증감률 추이. 7 월 출하량은 4,083 만대로 YoY 1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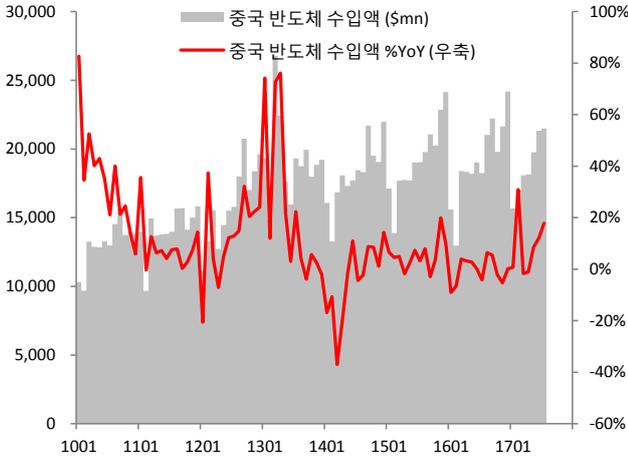
자료: WIND, 하이투자증권

<그림 6> 중국 업체 자국 시장 휴대폰 출하량 및 YoY 증감률 추이. 7 월 출하량은 3,929 만대로 YoY 1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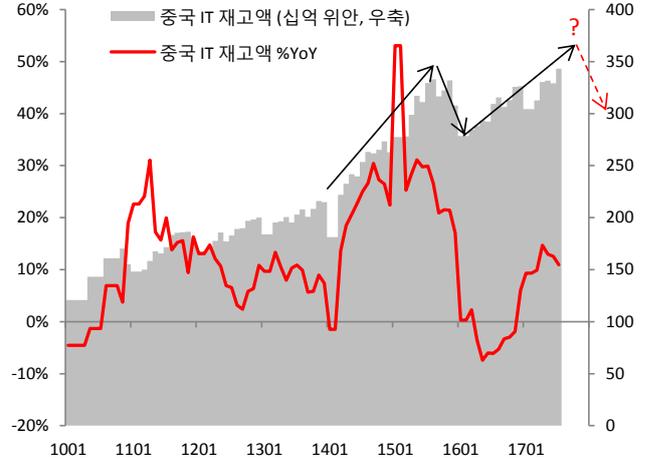
자료: WIND, 하이투자증권

<그림 7> 중국 반도체 수입액 및 YoY 증감률 추이. Set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입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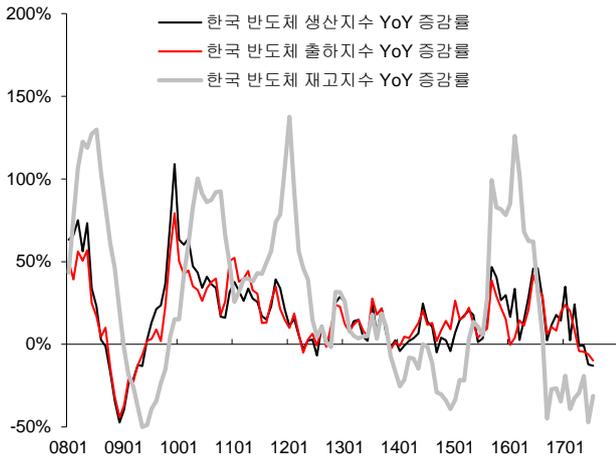
자료: WIND, 하이투자증권

<그림 8> 중국 IT 재고액 및 YoY 증감률 추이. Set 수요 부진과 부품 구매 증가에 따라 중국 IT 재고액은 7월 현재 사상 최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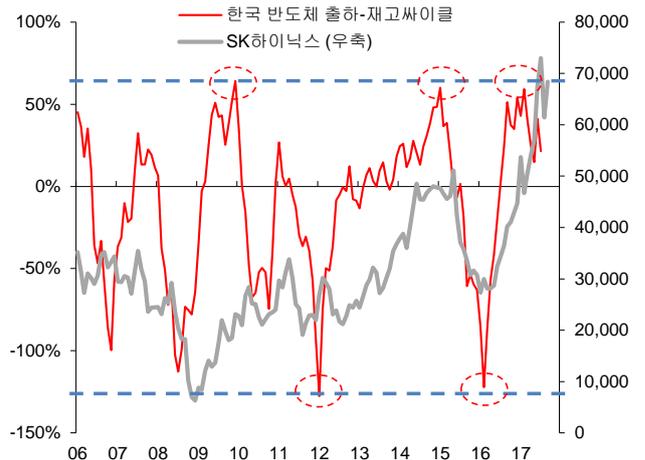
자료: WIND, 하이투자증권

<그림 9> 한국 반도체 생산, 출하, 재고 지수 YoY 증감률 추이. 최근 출하, 생산 지수 부진 중 재고도 바닥 수준



자료: 통계청, 하이투자증권

<그림 10> 한국 반도체 출하-재고 사이클. 올해 2월 역사적 고점에 근접한 후 최근 하향 혼조세



자료: 통계청, 하이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송명섭\)](#)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 공시 2017-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89.2 %	10.8 %	-